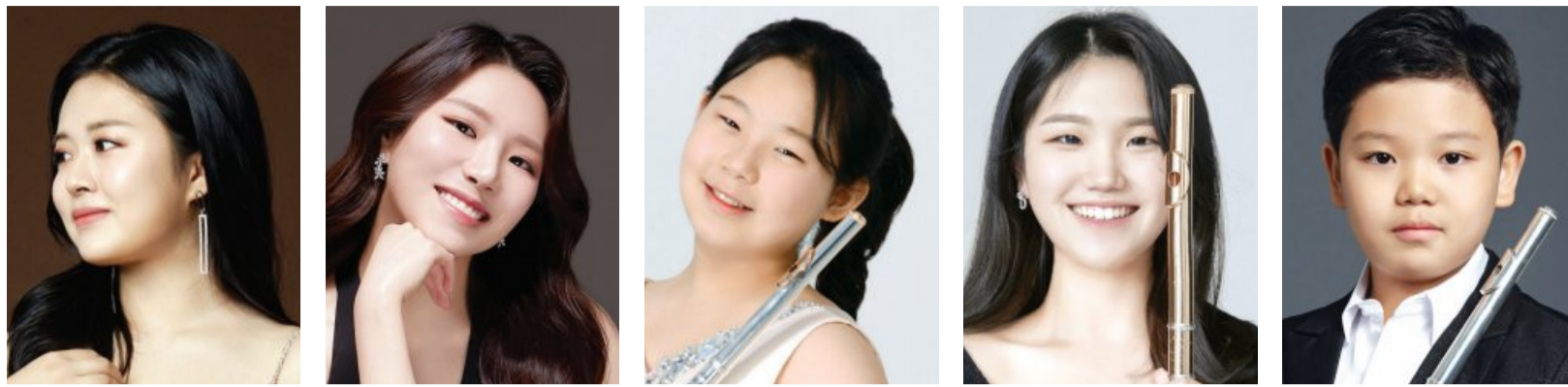


클래식 영재들의 무대... 호남예술제 출신 두각

‘금호주니어콘서트’ 20일 개막
8월 25일까지 금호아트홀
문하원·박채원·조윤지 등 출연



조윤지

박채원

채은울

문하원

장준혁

지난 2010년 시작한 ‘금호주니어콘서트’는 금호아시아나문화재단과 유스퀘어문화관이 주최하는 프로그램으로 만 26세 이하 주니어 연주자들을 발굴, 데뷔 무대를 마련해주기 위해 기획됐다. 지금까지 총 144명의 예비 음악가가 무대에 올랐으며 올 해도 피아노, 첼로, 플루트, 클라리넷 등 13명의 연주자들의 무대가 이어진다.

클래식 영재들의 등용문 ‘제12회 금호주니어콘서트’가 오는 20일부터 8월 25일까지 유스퀘어 문화관 금호아트홀에서 열린다.

특히 이번 콘서트에서는 광주일보가 주최하는 호남예술제 출신 연주자들이 두각을 나타내 눈길을 끈다.

오는 20일 첫 무대를 장식하는 플루티스트 문하원(추계예대 3학년)은 제62회 호남예술제에서 금상을 수상했다. 문 양은 이날 공연에서 모차르트 ‘론도 K.184’, 베르디 ‘라 트라비아타 환상곡’, 비

도르 ‘플루트와 피아노를 위한 모음곡’ 등을 들려줄 예정이다.

8월12일 공연을 갖는 바수니스트 박채원(국민대 3학년)은 제63회 호남예술제에서 은상을 받았으며, 이날 텔레만 ‘바순과 피아노를 위한 소나타 F 단조’, 제이콥 ‘바순을 위한 무반주 파르티타’, 슈만 ‘바순과 피아노를 위한 세 개의 로망스 OP. 94’ 등을 선보인다.

제63회 호남예술제에 입상한 소프라노 조윤지(연세대 1학년)는 8월17일 무대를 갖는다. 조 양은 이날 헨델 ‘잠 기쁨’, 슈베르트 ‘줄리아카’, ‘끝없는

사랑’, 로시니 ‘악수’, ‘초대’, ‘피렌체의 꽃 하는 아가씨’, 멘델스존 ‘남쪽으로’ 등을 들려줄 예정이다.

제64회 호남예술제에서 독주부문 최고상과 중주부문 금상을 받은 플루티스트 채은울(동아여중 2학년)은 8월19일 공연에서 텔레만 ‘플루트를 위한 환상곡 제 12번 G단조’, 고베르 ‘플루트와 피아노를 위한 녹턴과 알레그로 스케르잔도’, 비제 ‘카르멘 환상곡’ 등으로 관객과 만난다.

플루티스트 장준혁(유안초 5학년)은 제66회 호남예술제에 출전해 최고상을 받았다. 장 군은 8월 25일 예정된 공연에서 모차르트 ‘플루트와 피아노

를 위한 안단테 & 론도’, 볼링 ‘플루트와 재즈피아노를 위한 센티멘탈’, 폴랑 ‘플루트와 피아노를 위한 소나타’ 등을 들려준다.

이밖에 피아니스트 김예솔(21일), 클라리네티스트 박효인(22일), 피아니스트 여선형(27일), 튜바이스트 조재형(28일), 소프라노 최희리(29일) 등이 7월 무대를 장식하며, 8월에는 첼리스트 서지수(11일), 클라리네티스트 황민혜(18일), 바이올리니스트 이예솔(24일) 등의 공연이 열린다. 티켓은 1만원이며 공연 당일 현장에서 구매할 수 있다. 문의 062-360-8432. /전은재 기자 ej6621@



광주 어디까지 가봤니 광주관광재단 웹 예능

광주관광재단은 최근 웹 예능 ‘광주 어디까지 가봤니?’(이하 ‘광주어디가’)를 제작해 유튜브 채널 ‘광주관광TV’ 등 온라인플랫폼에 공개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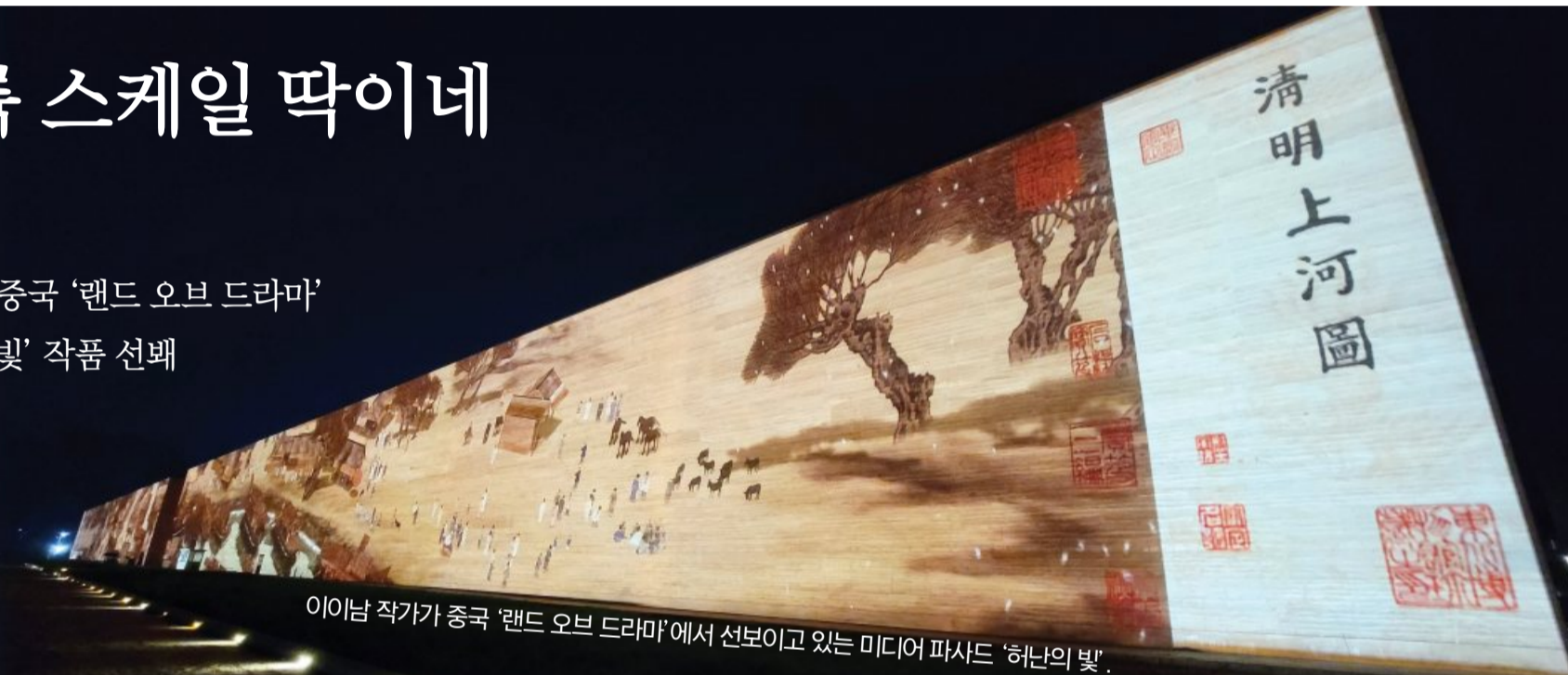
‘광주어디가’는 1인 미디어 시대를 반영해 광주의 관광 자원을 소개하고 관광 활성화를 도모하기 위해 기획됐으며, 개그맨 황영진과 지역에서 활동중인 MC 떡배가 초대된 게스트들에게 1913 송정역시장, 전일빌딩 245, 양림 역사문화마을 등 광주의 명소들을 소개하는 내용이다.

1편에는 SBS 공채 출신으로 유튜브 채널 ‘땅콩찐공’을 운영하는 개그우먼 이수빈이 게스트로 참여했다. 이들은 광주 송정역을 시작으로 광주의 여러 명소들을 방문·소개했다.

재단은 앞으로도 웹 예능을 통해 다양한 주제로 광주를 소개할 예정이며, ‘광주어디가’는 카카오TV와 네이버TV 등에서도 볼 수 있다. /전은재 기자 ej6621@kwangju.co.kr

이이남, 대륙 스케일 딱이네

세계 최대 복합연극 공연장 중국 ‘랜드 오브 드라마’
328m 미디어월에 ‘허난의 빛’ 작품 선봬



이이남 작가가 중국 ‘랜드 오브 드라마’에서 선보이고 있는 미디어 파사드 ‘허난의 빛’.

지난 6월 6일, 중국 허난성 수도 정저우시에 문을 연 ‘유니크 허난 랜드 오브 드라마(Unique Henan Land of Drama)’는 세계에서 가장 큰 복합연극 공연장이다. 41만㎡ 부지에 미로형으로 설계된 이곳은 21개의 연극장(메인 3개, 소규모 극장 18개), 호텔, 56개의 돌, 대형 미디어월을 갖추고 있으며 800명의 연기자 출연해 1만명 이상의 관객이 관람할 수 있는 30개 이상의 쇼가 펼쳐진다.

완공까지 4년이 걸린 ‘랜드 오브 드라마’에서 눈에 띄는 건 세계 최대 규모로 알려진 328m 대형 미디어월이다. 미디어아티스트 이이남 작가가 랜드 오브 드라마 미디어 월에서

대형 미디어 파사드 작품을 선보이고 있다. 현재 이곳에서 상연되는 25개의 공연작품과 관련 영상은 모두 중국인들이 제작했으며 외국 작가로는 이 씨가 유일하게 미디어 파사드 작품으로 관람객들을 만나고 있다.

17분 분량의 ‘허난의 빛’은 빛을 통해 중국의 유구한 역사를 재조명한 작품으로 허난성에서 제작된 ‘청명상하도’와 ‘천리강산도’를 소재로 했다.

이 작가는 디지털 기술을 통해 두 작품을 현대적으로 해석하고 정저우시의 역사적 가치와 아름다움을 결합해 독특한 작품을 완성했다. 5년 전 이 공간을 조성한 호텔사업가 미세스 후에게 ‘청명상

하도’와 ‘천리강산도’를 소재로 한 작품 제작을 의뢰받았던 이 작가는 오랜 인연을 이어오다 이번에 다시 한번 미디어 파사드를 제작하게 됐다.

이 작가는 올해 바쁜 행보를 이어가고 있다. 서울 서바나 미술관 개인전을 통해 자신의 DNA와 고전회화를 결합한 작품을 선보이고 있으며 카자흐스탄 한국문화원 초청으로 카자흐스탄 대통령궁 박물관에서 개인전 ‘빛의 시그널’을 개최했다. 이후 광주디지털비엔날레, 전남 수목비엔날레를 비롯해 스페인 마드리드, 라트비아 등 국내외 전시와 프로젝트들에 참여한다. /김미은 기자 mekim@kwangju.co.kr

송대성 작가, 강물 위에 춤추다

영산강문화관 온라인 초대전

송대성 작가에게 탐진강은 어린시절의 아련한 기억으로 남아 있다. 은어, 돌고기, 각시봉어의 자유로운 몸짓, 강변에 핀 할미꽃, 커다란 바위 등 강가에서 만난 것들은 잠재의식처럼 그의 곁에 머물렀다. 이후 어디선가 흘러왔고, 또 어디론가 흘러갈 강물은 그의 작업의 중요한 소재가 됐다.

K-water 영산강보관리단(박용순)·위터웨이플러스 영산강문화관(김창호)이 주최하는 송대성 작가 초대전이 지난 7일 개막해 영산강문화관 유튜브 채널에서 진행중이다.

이번 온라인 전시는 2021 영산강문화관 전시작가 공모를 통해 마

련된 초대전으로 송대성 작가는 ‘강물 위에 춤추다’를 주제로 다양한 작품을 선보인다.

유년시절부터 지금까지 기억하고 느껴온 강에 대한 감성들을 담아낸 송대성 작가는 강물에 비친 화사한 색채의 일렁거림과 다양한 의식의 변화를 자연스레 표출한다. 특히 이번 작품에서는 자연풍광과 함께 화면에 인물을 함께 그려넣어 눈길을 끈다. 다양한 형상으로 등장하는 인물은 작가이자, 우리의 모습이기도 하다.

조선대 미술대에서 한국화를 전공하고 동 대학원을 졸업한 송대성 작가는 17회의 개인전과 다수 단체전에 참여했다. 현재 선묵회와 수묵회 회원으로 활동 중이다. 문의 061-335-0868. /김미은 기자 mekim@kwangju.co.kr



‘강물 따라서’

자기돌봄 랜선라이프 치유하는 글쓰기

광주여성가족재단 22일부터

광주여성가족재단(대표이사 김미경)은 지난해 진행된 ‘타인을 돌보는 데 지친 당신을 위한 자기돌봄 랜선라이프’에 이어 올해도 문화예술 장르를 활용해 치유와 성장을 이끌어내는 시간을 마련했다.

‘자기돌봄 랜선라이프-치유하는 글쓰기’가 22일 시작해 매주 목요일 오전 10시부터 오후 1시까지 6차례 열린다. 이번 시간에는 ‘치유하는 글쓰기 방법’, ‘구조화된 글쓰기에서 나 만나기’, ‘미친년 글쓰기 문화의 역사와 글쓰기’, ‘부치지 않을 편지 쓰기’, ‘무의식과 만나는 투사 글쓰기’ 등을 다룬다.

치유 글쓰기 프로그램은 유명 마음칼럼니스트이자 치유하는 글쓰기 연구소를 운영하고 있는 박미라 대표가 진행한다. 박 대표는 서울불교대학원대학교 심신통합치유학과 박사를 졸업하고 한국도서치료학회 이사를 역임했다. ‘치유하는 글쓰기’, ‘천만면 팬텀’, ‘나는 왜 나를 사랑하지 못하는 걸까’ 등을 펴냈다.

이번 프로그램은 비대면 전용 치유 프로그램으로 참가비는 무료이며 참가신청은 광주여성가족재단 홈페이지에서 하면 된다. 문의 062-670-0560. /전은재 기자 ej6621@kwangju.co.kr

SINCE 1982



각국 보청기 전문 A/S센터 상표등록 제2549335호

“고객에게는 신뢰와 만족”

- 필요한 소리만 똑똑히 들립니다.
- 작은 사이즈로 착용시 거부감이 없습니다.
- 정직한 우수상품 가격부담이 없습니다.



국제보청기

- 본점** 서석동 남동성당 옆 062) 227-9940
062) 227-9970
- 서울점** 종로 5가역 1층 02) 765-9940
- 순천점** 중앙시장 앞 061) 752-9940